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처리

남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공명현)는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열었다. 임시회 첫 날인 지난달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광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더 한층 서민들의 삶 속에서 사랑받는 국민 체육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일부터 3일까지 안전검토와 심사를 거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개의 안전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다.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2011. 8. 1. “간사”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회의의 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



남구의회 제200회 임시회가 지난달 3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돼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필요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 구현하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치공동체 실현코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코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새로운 공직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비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 「공무원

비조례」의 설치 근거법령인 「공무원

중국 수분하시 공식 초청 방문

보세구역 등 현장 확인 통해 남구경제 살리기 모색

남구의회 공명현 의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수분하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분하시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세차례에 걸쳐 국제교류를 희망하다 지난해 11월 수분하시측에서 남구를 방문해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양구간의 우의를 지속시키고 협력해 두 도시간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을 두고 중국 수분하시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졌다.

남구 방문단은 방문기간 동안 수분하시 보세구역 등의 경제지역을 현장 확인 하면서 우리구 지역 기업인의 마음으로 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수분하시 당시기 측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부산 남구, 중국 수분하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3개국의 3대도시가 중심이 된 경제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 분야에 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협의하는 등 실질적 외교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공 의장은 “양 도시의 경제관련 정보교환과 보세구역 현장확인을 통한 기업환경 등 현지정보를 지역 기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수분하시 보세구역을 찾은 의원들이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한편 보세구역 내 설명회 자리에서는 자료로 배포된 세계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의 경계를 알리는 표시 중 일본해로 명기된 점이 발견돼 의원들은 즉석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해 눈길을 모았다.

의원들은 독도 소유권에 대한 영토분쟁으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관계자에게 알린 후 동해로 수정 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곳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임시회)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 (어린이는 보호자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당일 오셔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남구의회 조례안 의원 발의

정혜숙 의원-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승철 의원-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박두춘 의원-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정혜숙의원



여승철의원



박두춘의원

남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제200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남구의회 정혜숙 의원 등 9인은 지난달 1일부터 ‘간사’ 호칭을 ‘부위

원장’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회의의 규칙을 이에 맞게 개정했다.

또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과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남구의회 여승철 의원 등 7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등 8인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발의했다.

■ 5분 자유발언

국민체육센터 활용 극대화 시켜야

김광명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남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남구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남구가 위탁운영의 고질적인 비리 해소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육센터를 작영에 나선 것은 적절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밝히고 국민체육센터의 향후 운영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체육센터는 모든 것이 이튼보다는 현장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강사들의 처우나 복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협회에서 운영한 1년4개월 동안에 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해지와 관련해



김광명의원

협회의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산은 확실하게 마무리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민체육센터의 활용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유아 스포츠단 운영 공간 마련과 비효율적인 공간의 재정부 등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은택)는 지난 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손애휘)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2011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박두춘)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과 2011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상일)는 지난 6일 구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박기홍 의원은 지난 5일 부산광역시 구·군 의정협의회로부터 「제3회 부산광역시 의정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남구의회 공명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구세군 부산요양원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현황설명을 들었다.



남구의회 공명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7일 새빛기독보육원을 찾아 시설 현황과 불면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계자와 원생들을 격려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안내

- 융자 대상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중 심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자
 -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어 받은 경우 제외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대연동, 용호동)
- 융자 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리 3%, 5년 거주 5년 분할상환

- 융자요건
 - ▷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2인
 -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1,200만원), 보증대출(2,000만원), 담보대출(담보 범위 내 5,000만원 한도)
- 문의
 - 구청 주민복지과(607-434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인터뷰 - 손 애 휘 총무위원장

‘남구 UN평화도시’ 구현에 앞장

전문성 갖춘 의회 싱크탱크로 맹활약

UN평화대추전 등 평화나눔사업 추진



재선의 손애휘 총무위원장은 “남구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화’를 대표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에 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손 위원장은 UN평화기념관 건립 UN평화대추전 등에 대한 구상과 정책 제안, 예산확보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음은 남구의 평화 전도사로서 ‘UN평화대추전’ 행사를 총괄 진행하고 있는 손애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평소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지방의원 개인별로 최소한 1개 분야 이상 공무원들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남구의 미래경쟁력을 높일 정책 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이 의정활동의 목표이며, 그것이 ‘남구 UN평화도시’의 구현이다. 남구는

평화를 상징하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를 대표상품으로 개발하여 남구로 사람과 재원이 몰려들게 해야 한다. 남구를 세계평화의 성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UN평화문화지구 사업 개발, UN

평화기념관 건립 및 (가칭)UN Peace Center 건립사업, UN평화대추전 개최, 평화나눔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재선의원으로서 남구의회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의정성과는?

▲ 개인적인 경력과 의정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다. 의회의 자치입법기능을 높이기 위해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제정, 지역 발전의 틀을 만드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활동 등을 통해서도 현황 분석이나 문제점 지적에서 끝내지 않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집행부의 시책사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구를 평화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 UN평화사업을 추진할 민간 단체인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운영하는데 실무를 총괄하였다. 그중 UN으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UN평화특구’로 지정받고, UN평화기념관 건립사업과 UN평화대추전 개최는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평화사업을 위한 하드웨어가 ‘UN평화기념관’이나 ‘UN Peace Center’ 건립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세계인이 함께 평화를

노래하고 생각하는 장이 될 ‘UN 평화대추전’,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봉사과 교류활동으로 이루어진 ‘평화나눔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참전국가와의 문화교류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UN평화봉사단과 UN Peace Club의 조직·운영사업도 기획, 현재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달 22일부터 열리는 제1회 UN평화대추전 행사가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손애휘 위원장은 경영학 박사로서 부산발전연구원·부산시의회 연구위원, 동서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과 부산미래색조포럼 정책부위원장, 해양산업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일반회계 1,941억, 특별회계 59억 등 2,000억 규모

남구의회는 제2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941억 4,500만원, 특별회계 58억 5,500만원을 합하여 총 2,000억원으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상일)의 종합 심의를 거쳐 8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번 확정된 예산안은 남구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비, 국민체육센터 지영 운영관리에 따른 추가 반영분과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 정리 등에 역점을 두었다.

남부경찰서 치안정책 설명회 들어

남부경찰서 전창학 서장은 지난 8일 남구의회를 방문해 치안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전 서장은 이날 “올 상반기 치안종합성과가 평가 결과, 시민에게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제공하고 체감 치안안락도 향상 등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았다”며 “이

를 계기로 더욱 지역실질 및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활동 강화로 더욱 전속한 경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및 도로정비 사업, 방법용 CCTV 및 보안등 신설을 위한 예산 확충 등 의원들의 협조와 홍보를 요청했다.